특별 인터뷰 | 『성경은 드라마다』(MP)의 저자

마이클 고힌 교수

마이클 고힌 교수는 전직 레슬링 선수답게 아주 풍채가 좋고 다부졌다. 그는 생각이 분명하고 예리하였으며 말에 힘이 넘쳤다. 통역으로 수고하신 신국원 교수가 많은 부분 고힌 교수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다.
이 글은 큐티저널 2011년 봄호에 게재된 것으로 출판사의 동의를 구했다. – 편집자 주

교수님은 자신을 어떤 스타일의 말씀 사역자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젊어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생활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신약은 1주일에 한 번, 구약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통독을 했어요. 나중에 개혁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엔 초반에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엔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성경 대학 (칼리지)에 다니면서 성경 코스들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을 읽었어요. 한 3~4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 때 이후 열심히 성경 공부 한 게 지금 오늘날의 큰 자산이 되었어요. 저는 철저히 성경 말씀 위에 선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20세까지 전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니고 교회는 다니긴 했어요. 플로리다에 가서 처음에 체육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생활 했어요. 사실은 어떤 예쁜 여학생을 봤는데 그 여학생 보고 싶어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3:1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데 듣는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사실 나는 미지근한 것도 아니었고 아예 찬물이었는데(웃음),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웃음)...그런데 그 말씀이 기분 나쁘면서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예 교회당 문을 박차고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믿든지... 그래서 절대 안 믿겠다고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까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새벽 3시쯤에 내가 안 믿는 쪽으로는 못 간다는 결론

소외된 자
함께 성경

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때 "이제부터 제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게 어떤 극적인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저처럼 모두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매우 활동적인 스타일을 가지신 분인데...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셨던 교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 변화되셨나요?

사실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를 해 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 즈음에 캐나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냐? 캐나다가 선교지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기독교인이 20% 미만이에요. 그나마 자유주의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특별히 벤쿠버 같은 데는 유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 외국에 나갈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집이 캐나다 토론토 근처니까 토론토 근처에 교회를 개척 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자신도 없고 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보통 서구는 교회 개척을 여러 단계를 거쳐 매우 조직적으로 해요. 그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 개척교회의 시작이 7년을 쭉 갔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분명해진 사실은 설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은혜로운데 목회, 즉 돌봄 사역은 별로 은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초청이 도트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오게 된 거예요. 도트 칼리지는 아이오와 시골에 있어요. 목회 하면서 힘들어서 갔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강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사 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통해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평가가 항상 최상위로 나왔어요. 학생들도 너무 좋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지요.

교수님은 가르치는 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같이 목회 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도트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역에 대한 미련을 못 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주변 시골 마을에(신호등이 몇 개 없는 작은 도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농촌 마을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5개월간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도트 칼리지에서 저는 다시 캐나다 해밀턴의 리디머 기독교 대학(Redeemer College)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바로 그 다음날 해밀턴 Christian Reformed 계열의 한 교회(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저에게 "당신이 전에 CS 교회가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 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교회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다그쳤어요(웃음). 그래서 할 수 없이 도트 칼리지 출신 학생들 가운데 신학공부를 마친 학생 2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게 1999년 일인데 지금까지 한편으론 교회, 한편으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신학교 교수로서 이상적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과 목회 현장을 둘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발은 학교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어요.

교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책이나 논문 같은 것은 안 쓰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말하는 사람이지 글 쓰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디머 칼리지에 왔을 때 교무처장 엘린 포터라는 굉장히 강한 여성이 대놓고 저

한테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짐을 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서(publish or perish) 대놓고 화를 냈어요(웃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책 같은 것은 안 쓴다고 버텼어요. 그러나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웃음). 사실 제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제가 먼저 나서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저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할 교재가 없었습니다. 교재가 있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크레이그 바솔로뮤(Craig Bartholomew)에게 부탁하니까, 저보고 같이 쓰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겠다고 해서 함께 쓰게 된 거에요. 바솔로뮤는 구약학자여서 구약 부분을 쓰고 저는 신약을 썼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는 누가 쓸 거냐고 서로 미루다가 동전 던지기에서 제가 져서 제가 쓰게 되었어요(웃음). 가톨릭에서도 이 책을 쓰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첫 출판에 만권 이상 팔렸어요. 처음에는 리디머 칼리지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쓴 책인데 정말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현재 신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죠.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세계관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세계관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대학에서의 세계관 공부라는 것은 좀 희귀하죠. 따로 가르치는 과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위에 철학이 있으면 유물론적 철학이 되는 거죠. 신학도 사실 세계관 밑에 있고, 과학도, 체육도, 그 밑에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저는 세계관을 학문적인 관심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과 실천적인 관심을 갖고 세계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통해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르쳤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세계관 공부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리디머에 올 때는 두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저의 전공인 선교입니다. 저의 박사학위가 교회의 선교(mission of church) 쪽이거든요. 대부분 세계관을 공부하려면 똑똑해야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디머 칼리지에서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가 알버트 월터스 아닙니까? (웃음) 또 거기에 하스라고 유명한 조직신학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 하고 깊은 토론도 하고 때로는 서로 논쟁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의문은 이런 어려운 세계관 이론 이전에 학생들이 우선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일종의 스토리로 아주 쉽게 가르치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안목을 넓혀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더 테크니컬하게 고급단계를 가르쳤어요. 기존과는 다른 일종의 커리큘럼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내가 성경을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거꾸로 되어야 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기초한 삶을 이야기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성경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신앙생활은 성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세계관 운동은 커지

저는 성경의 큰 흐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쭉 하면서 세계관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 성경, 이야기 성경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큰 맥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고 넓어지는데 정작 이 세계관 운동에 성경적인 뿌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세계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세계관을 공부해본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뭐 별거 없네!"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내가 세계관을 배워서 무얼 했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만 한 경우이지요. 또 한 부류는 그나마 좀 나은 부류인데, "별거는 없지만 성경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부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 세계관이든, 조직 신학이 됐든 그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체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근대적인 뿌리를 찾으면 아브라함 카이퍼를 들 수 있습니다. 카이퍼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축소하고 신앙도 너무 축소해서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으로 축소해 버리고,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을 시작한 카이퍼 역시 성경을 읽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에 세계관 운동을 온전히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기독교 세계관 책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의 큰 흐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관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데리고 "세계관 교육하자, 자 이제부터 따라해! 창조, 타락, 구속!"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 쭉 하면서 세계관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뭘 하시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어린이 성경, 이야기 성경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큰 맥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통찰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관 교육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젠 좀 더 조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교수님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디 한국교회 안에 성경이 기초가 된 세계관 운동이 불 일듯 일어나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세계관 운동은 결코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의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아주 실제적인 운동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한국교회가 힘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주님 오시기까지 큰 승리가 없더라도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갈증과 배고픔은 주님의 날에 비로소 드러나는 주의 정의와 위로 안에서 해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요체라 생각합니다.